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ODDFITS

가제 : 겹도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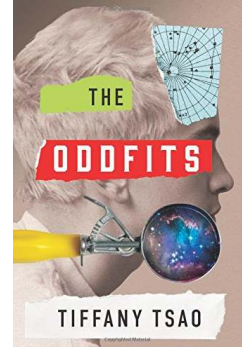
저자 : Tiffany Tsao

출판사: AmazonCrossing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남자, 그 남자와 만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외톨이 소년

앞날이 창창하던 청년 유수프는 열아홉 살이던 1939년 어느 날, 별안간 어딘가로 사라졌다. 싱가포르 최초로 ‘매그놀리아’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심한 그는 개점일이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 부모님이며 수많은 형제들, 친척들에게 장장 37쪽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종이에 빼곡하게 채워 넣은 그 유수프의 편지를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막내 동생 아mina 뿐이었지만, 아직 너무 어린 탓에 내용을 모두 식구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부모님들은 일단 아들이 나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형제들은 이따금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다가 그럴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그런데 46년이라는, 반 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유수프가 65세 백발 노인이 되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처음 사라질 때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등장한 그를 맞이한 건 사촌 몇 명과 아mina가 전부였다.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도 싱가포르가 일본 침략이며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어진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겪는 동안 하나 둘 목숨을 잃거나 생을 다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도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아mina의 주도로 그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남아 있는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유수프는 식사 내내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누군가가 겨우 물어보자, 그는 걱정만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유수프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후, 유수프는 새파란 청년일 때 시작하려던 아이스크림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시내 한 켠에 가게를 열었다. 바로 그곳에서 머가트로이드와 유수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는 신비한 영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

여덟 살 꼬마 머가트로이드는 태어난 날부터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물에 뜬 기름처럼 동동 뜬 존재로 살았다. 어느 싱가포르 사람들과 달리 금발에 눈 색깔도 파란 색인 눈에 확 띄는 외모 때문에 어딜 가나 시선을 받았지만, 공부든 운동이든 딱히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엄마아빠조차 머가트로이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잘해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어색하게 친절할 말과 행동이 억지로 짜낸 것이라는 것쯤은 어린 머가트로이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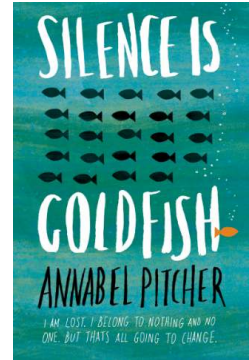
어느 날, 유수프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온 꼬마 머가트로이드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냉동고를 보여주면서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다. 머가트로이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그 말을 들을 기회를 다시 얻기도 전에 그만 유수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해 받지 못하는 기분에 소외감을 느끼던 머가트로이드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주고 받아준다고 느낀 사람이 유수프였기에, 그 슬픔과 아쉬움은 말로 다 못할 정도였다. 다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2004년에 이제 다 큰 성인이 된 머가트로이드는 동네 음식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수입도 변변치 않고 친구도 딱 한 명뿐인 외롭고 지루한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눈이 하나 밖에 없는 묘한 여성이 그를 찾아와 무언가를 건넸다. 바로 그 순간부터, 유수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알려진 세계’로 불리는 이 세상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고, ‘더 많이 알려진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더 많이 알려진 세계’는 선택 받은 일부만이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었다. 바로 머가트로이드처럼, ‘알려진 세계’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다. 갑자기 눈 앞에 펼쳐진 전혀 새로운 세상과 이상한 단서만 남기고 떠난 유수프는 무슨 관계일까? 머가트로이드에게 서둘러 해결해야 할 임무가 떨어지고, 이제 선택할 일만 남았다. 낯설지만 흥미로운 탐험 기회를 붙잡거나, 그냥 살던 대로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괴물이나 요정, 마법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판타지적 요소가 다분한 소설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조차 사랑 받지 못하는 머가트로이드와 이기적이고 못된 주변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때때로 얼마나 자기 위주로만 편리하게 정의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 소개>

티파니 차오(Tiffany Tsao)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다. 웰즐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를 취득한 후 모교와 조지아 공과대학, 호주 뉴캐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다양한 간행물을 통해 단편소설, 시, 문학비평, 번역을 발표해 왔다.

제목 : SILENCE IS GOLDFISH
가제 : 침묵은 금붕어
저자 : Annabel Pitcher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남들을 위해 듣기 좋은 말, 속에 없는 말만 하면서 살아온 소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잔인한 현실

이제 막 열다섯 살이 된 테스가 지난 14년 동안 말하고 행동한 것들은 거의 다 ‘거짓말’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었으니 말이다. 엄마아빠는 하나 밖에 없는 딸 테스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발하고, 인기도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무대 위에 올라가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도 숨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런 기대를 테스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테스는 부모님의 그 뜨거운 소망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 학교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테스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합창단에 들어가 전혀 관심 없는 파트에 지원하여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관객에 머무르고만 싶은 연극에도 배우로 선발되려고 연습도 하고 오디션까지 참가했다. 그런데 마음 속 진짜 목소리와 정반대되는 말들을 하느라 힘겹게 노력해야 했던 테스를 단번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아빠가 사실 친 아빠가 아니라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

우연히 보게 된 아빠의 컴퓨터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떠 있었다. “‘낯설기만 한’ 자기아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아버지”라는 제목과 함께, 테스가 정자 기증을 받아 태어난 아이이며 아빠는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친 부모가 아니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고 싶어서 아무리 싫은 일들도 꼭 참으며 살아온 테스였기에,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가슴 아픈 사실이었다.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말문이 막혀버린 테스는, 그 길로 말을 잃고 말았다. 처음부터 걱정하고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실어증에 빠져 있는 동안 테스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안 하고, 남들이 침 없이 던져대는 곤란한 질문에도 억지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인지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모님은 입을 닫아버린 테스를 보고 좌절하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어 치료며 심리 상담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일 친한 친구 셀레나는 자신에게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는 테스에게 웬지 모를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테스에 관한 못된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테스의 마음 속에서는 아빠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고민을 거듭하던 테스는 자신의 진짜 아빠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목소리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도 잃어버린 후,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는 성장소설

테스는 지금의 아빠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원하는 딸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요구한 것도 친딸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 믿게 된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친 아빠를 만나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고 사랑해주리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유능한 탐정도 울고 갈 만큼 탁월한 정보 찾기 실력을 발휘한 테스는 마침내 정자 기증자인 리처드슨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다.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찾아낸 리처드슨 씨의 곁에는 놀랍게도 테스와 동갑인 남자아이가 있었다.

두 사람에게 자연스레 다가간 테스는 리처드슨 씨의 아들 샘과도 친해지고, 그 공원에서 처음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샘과 테스는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것을 느낀다. 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테스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편안히 함께 있어 주었다. 이들과 친해지는 사이, 집에서는 엄마아빠와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테스는 점점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샘이나 리처드슨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말을 한 마디도 안 한 상태로 긴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편하게만 느껴졌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특히 셀레나와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던 날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걸까? 이미 자신에게 애뒀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샘에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태는 점점 더 꼬여만 가고, 테스는 그 어느 때 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간절해진다.

<저자 소개>

애너벨 피처(Annabel Pitcher)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아동, 청소년 문학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데뷔 소설 『누나는 벽난로에 산다(My Sister Lives on the Mantelpiece)』로 2012년 브랜포드 보스 상(Branford Boase Award)과 베티 트라스크 상(Betty Trask Award)을 수상했고, 『Ketchup Clouds』로 2014년 워터스톤 아동문학상(Waterstones Children's Prize)'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딜런 토머스 상(Dylan Thomas Prize), 영국 갤럭시 도서 상(Galaxy British Book Award) 등 저명한 상에 후보로 거론됐다.